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김영란 집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말씀을 마음에 두라 (시 119: 9-16)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하나님의 열심” (에스겔 39:25)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은 첫째, 우리들의 회복을 위한 열심입니다.** 에스겔 39 장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망하고 포로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포로된 자, 소망을 잃은 자, 묵인 자, 절망하고 낙망하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과 부흥을 위해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단에 포로된 우리들, 자기 생각, 욕심, 정욕, 세상의 것에 포로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심히 감당하라고 주신 교회의 사명, 구원 받은 자의 사명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심을 내야 할 사명은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영혼들, 사단에 붙잡혀 사는 영혼들, 죄의 욕망에 사로 잡혀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만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도우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둘째,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열심입니다. 본문에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16 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우선으로, 말씀 우선으로, 교회와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우선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은 넘어가지 못할 일을 넘어가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과 일을 용서하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 영혼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교회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전도회 성경공부** - 구약의 파노라마를 마치고 이번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 **부장 & 운영회** - 오늘 오후에 제직회 & 운영 위원회 모임이 1시에 모입니다.
4. **성도 총회** - 7월 28일 주일 예배 후 중간보고를 위한 성도 총회가 있습니다.
5. **나바호 단기선교** - 7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나바호 단기선교 평가회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 **개인 컵 사용** - 교회에서 일회용 컵과 그릇 사용을 줄이고 각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7/14	7/21	7/28	8/04
대표기도	김영란	손다니엘	유경주	조정욱
헌화성도		김정숙	김대성	이진수
봉사당번	사랑구역	믿음구역	각전도회	믿음구역

행사 및 모임

7 월	나바호 단기선교	6 월 30 - 7 월 6 일
	성도 총회	7 월 21 일
8 월	교회 대청소	미정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2,304.00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조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여름 가족 여행속의 축복

지난 6 월과 7 월 첫주간은 오래 기억에 남을 가족 여행과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잘 마쳤고, 졸업 여행 겸 계획했던 일본에서의 한주간과 한국에서의 두주간의 시간을 가족 여행으로 보냈고 돌아온 후 바로 아리조나 나바호 선교까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각자마다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이번 여행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쉼과 기쁨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학교부터 알고 지냈고 청년 때에 달라스에서 찬양사역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곳 북가주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12년 전에 일본에 나가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시무하는 선교관에 며칠간 머무르며 함께 교제하며 지낸 시간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후배 목사님 부부와 함께 옛날의 추억들을 나누며 많이 웃고, 특별히 일본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들과 힘들 일, 그리고 무거운 마음들을 나누면서 함께 위로와 조언,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배 목사님의 딸이 우리들이 함께 늦은 밤까지 대화하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엄마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며 좋다는 말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는 소망 공동체 고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정주환 목사님이 계신 경상북도 김천에 내려갔었습니다. 김천에서 커피 사역과 함께 작은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시며 시설에서 나온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사회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역하시는 곳을 들려서 함께 보낸 시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골에 내려 왔다고 기뻐하며 환영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일들을 나누어 주시는 두 분의 모습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 저희의 마음에까지 흘러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니 더 힘이 난다고 하시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 한곳 한곳을 시간을 내서라도 꼭 방문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 친구들을 만난 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나갔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너무 오랫동안 멀어져 있고, 삶에서도 이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함 속에 만났고, 식사 후 저와 그 중 신앙의 친구 하나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과 기쁨, 만족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간증을 나누었을 때 그 간증을 듣고 한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너희가 만난 예수를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그런 변화와 믿음 갖고 싶다”라며 이제 교회에 나가겠다고 더 세게 (!)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만남을 가졌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귀한 만남과 주님의 사랑과 주신 축복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